

대학생의 국제회의통역사에 대한 직업이미지 연구

허 지 운
(이화여대)

1. 서론

이미지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을 뜻한다(국립국어원 2019). 다양한 대상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 직업이미지는 특정 직업으로부터 받는 느낌이나 심상, 영상, 인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직업이미지는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에 있지만, 자신 및 타인의 직업에 대한 사고를 형성하고 자신의 진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박기순 2000). 특히 졸업 후 사회생활을 앞두고 진로 결정이 임박한 대학생에게 형성되는 직업이미지는 자신의 진로 결정 및 향후 사회생활을 통해 교류하게 될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직업 중 국제회의통역사에 대하여 대학생이 갖고 있는 직업이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졸업 후 진로를 설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게 되는데, 국제회의통역사가 갖는 직업이미지가 여러 직업 후보군 중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연구한다면 진로개발, 인재

발굴, 직업이미지 개선 등을 위한 좋은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전문 국제회의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학부 졸업 후 통번역대학원 진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내외 유수의 국제회의통역사 양성 교육과정은 전문 동시통역 교육을 포괄하는 대학원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 전문 국제회의통역사로의 진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학부 시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 인재양성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국제회의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면 이 진로의 전망과 선호도에 대한 대학생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는 향후 대학원 통번역 전문 과정의 개선, 통역사 진로 관심 대상 집단 확인, 인재 발굴, 선발 및 양성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전문 통역사로서의 진로에 대한 관심은 적으면서 단순히 영어 학습이나 일반 기업 취업 기회 확대 차원에서 선택하기보다는(이상빈 2013) 이 직업의 진로와 자신의 적성을 제대로 알고 전문 통역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학생 개인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도, 그리고 인재 양성의 효과를 한층 제고하는 데 있어서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제회의통역사에 관하여 직업이미지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며, 언론을 통한 사회적 인식을 다룬 연구(박소영 2020; 허지운 2016), 영어통역학부생들의 통역사 직업 인식에 관한 연구(이상빈 2013), 통역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통하여 통역사 시각의 직업 인식을 볼 수 있는 연구(이지은 2017; 임세인 2018), 지자체 통역사의 근무일지를 기반으로 한 정체성, 역할 및 지위 연구(김희란, 이지민 2018)가 주를 이루었다. 사회적 인식 및 내부적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사회가 통역사에게 기대하는 역할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통시적, 공시적 고찰을 바탕으로 통역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인식 및 태도 차이를 알아볼 수 있었고, 통역사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선 파악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무척 의미가 깊다. 다만, 진로선택을 앞둔 당사자의 국제회의통역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국제회의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한 보다 다면적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생들이 국제회의통역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직업이미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직업이미지

직업이미지는 직무 유형, 보수, 직무 조건, 적합성, 종사자의 성격 및 삶의 특성을 바탕으로 직업에 대하여 개인이 갖는 종합적인 인상을 가리킨다(Gottfredson 1981; Thompson and Dahling 2010). 고트프레드슨(Gottfredson 1996)은 각종 직업의 젠더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직업별 위치를 정리한 직업이미지 지도를 완성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된 직업인지지도 연구 중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2004)의 연구에서는 직업 포부 및 직업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남성적, 여성적 직업에서 포부수준이 높고 직업의 사회적 지위와 성별 유형에 대하여 현실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형성된 공통의 이미지가 있다는 점은 대중매체가 직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일모(2007)는 시청 빈도가 높아질수록 드라마에 나오는 직업이미지가 이를 시청하는 중학생의 해당 직업에 대한 외적 및 성격적 이미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이는 대중매체에서 해당 직업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비추는지 여부에 따라 청소년들의 해당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미영(2014)의 연구에서는 시청 빈도가 직업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TV 속에 묘사된 성역할이 고정관념 인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직업이미지는 개인차, 세대차 및 발달 과정 상 차이가 있으며, 진로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세대와의 직업 인식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강혜영, 엄성혁 2017).

한편 박선미, 정이화, 최정호(2007)는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직업 빈도와 이미지를 사회적 지위, 사회적 영향력, 소득 수준, 교육 수준의 네 가지 스테레오타입 하위 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직업군 중 전문직 군이 더 상세하고 긍정적으로 다루어지고 그 외 직업은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교과서가 오히려 사회의 차별적 인식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미지는 자기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김병숙, 장부경(2007)은 내재적 가

치인 자기능력, 사회헌신, 인간관계 중심, 외재적 가치인 경제우선, 권력추구, 안정추구, 그리고 사회적 평가 및 지적평가의 총 8가지 요인으로 직업이미지를 구분하고, 조사대상 대학생들을 성취형, 무계획형, 타협형으로 분류한 후 대학생의 희망직업이미지와 이상적 및 현실적 자기이미지간 일치성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어떠한 희망직업 이미지 가치유형과 자기 이미지 유형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대학생 성격유형별 진로 경로 설정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미지의 구성요소는 직업선호도 및 직업이미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메이, 챔피언과 오스틴(May, Champion and Austin 1991)이 설계한 간호사 직업이미지 설문조사에서는 존경받음, 인정받음, 자율적 의사결정, 머리를 쓸, 사람들을 돌봄, 안전한 근무 환경, 열심히 일함, 직장이 항상 있음, 지식이 필요함, 좋은 성적, 대학 교육 이수, 바쁜 업무, 고소득, 리더쉽, 손을 쓰는 일, 첨단 기술, 그리고 권력을 이상적 직업이미지 조사의 구성 요소로 하였다.

강혜영, 이지은, 송윤심(2014)은 ‘중학생의 선호직업에 대한 직업이미지 분석’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 조사를 종합정리하여 보상 이미지, 전문성 이미지, 업무특성 이미지, 업무환경 이미지, 사회적 평판 이미지를 요인으로 설정하고 7개 직업에 대한 중학생의 직업이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직업간 상이한 특성으로 인하여 직업별로 요인분석이 상이하게 도출되어 공통된 이미지 요인이 형성되지 않아 부득이 개별 문항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이지은, 강혜영(2019)은 2014년 조사도구를 발전시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호 직업에 대한 인지적 직업이미지 척도를 개발하였고, 요인분석을 거쳐 보상, 업무환경, 직무특성, 대중적 선호, 전문성의 총 5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2.2 국제회의통역사 직업이미지

국제회의통역사의 직업이미지는 주로 대중매체에서 다뤄진 내용을 위주로 연구되거나 통역사의 직무 만족도 및 직업 위상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대중매체 연구 중 허지은(2016)의 연구는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의 언론보도에 투영된 동시통역 및 동시통역사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조사 결과 기사에서 ‘동시통역사’ 혹은 ‘동시통역’을 다룰 때 연예인의 외국어 능력 또는 외모와 화려한 배경만을 부각시키는 등 ‘동시통역’ 또는 ‘동시통역사’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직업의 전문성 인식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소영(2020)은 1948년과 2020년 사이 언론에 보도된 통역사에 관한 기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이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통역사가 기사에 빈번히 언급되고 전문성이 부각되는 등 대한민국 수립 초기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통역사의 가시성이 높았다는 점을 조명하였고, 군정 시대 이후 사회적 변화에 따라 통역사가 남성의 직업에서 여성의 직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것과 군정기 폐단으로 인하여 부정적이었던 통역사에 대한 인식이 90년대 들어 전문 고소득 직업이라는 긍정적 방향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박소영 2020). 또한, 최근에는 MC 및 방송직과 결합한 ‘엔터프리터(enterpreter)’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전술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다(박소영 2020).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앞으로 이 직업을 진로로 고민하는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조명하고자 하는 논점에 따라 오히려 언론보도가 직업에 대한 전문성 이미지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어 진로결정에도 긍정과 부정의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다.

한편, 통역사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통역사의 직업이미지는 직업만족도를 통하여 일부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족도 항목 중 일부는 직업이미지 항목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2017)의 직업만족도 조사 항목 중 수입, 승진, 보수 인상 기회, 전문성, 사회적 인정, 인간관계, 업무 자율성, 보람, 흥미, 직업안정성 항목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 통역사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항목은 성차별이 없다는 점이었고, 경력이 오래된 통역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누리며 직업 만족도가 높았으나 경력이 짧은 통역사일수록 수입, 직업 전망, 안정성 면에서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길이에 따른 이러한 차이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직업의 제반 조건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세대간 인식차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진로 설계를 해야하는 학생들의 직업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담과 제트슨(Dam and Zethsen 2013)은 국제회의 통역사의 직업위상에 대한 통번역사들의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 직업의 지위, 보수, 교육 및 전문성, 가시성, 권력 및 영향력,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및 가치를 주요 항목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통역사들은 보수 수준에 만족하고 직업의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직업의 가시성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적은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 중 수화언어 통역사의 직업위상 연구를 수행한 위터메리튜와 존슨(Witter-Merithew and Johnson 2004)의 연구에서는 전문직업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이론, 권위, 학력, 신규 통역사에 대한 체계적 진입 체계, 윤리강령, 보수, 평생직업개발, 규범, 문화를 직업위상의 주요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수화통역사는 국제회의통역사와 통역 유형은 다르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된 항목들은 국제회의통역 영역에서도 참고하기에 좋은 공통항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임세인(2018)은 프리랜서 통역사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인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직업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조직 내 가치, 전문성, 개인역량, 업무자율성, 고용안정성이 직업 위상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통역전공 학부생들의 직업인식을 연구한 이상빈(2013)의 연구에서는 주관식 문항을 통해 불규칙한 수입, 낮은 자존감, 낮은 사회적 대우,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학부생들이 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인식하는 부정적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이처럼 통역사 및 통역 학습자 시각에서 바라본 직업위상, 직업 만족도 항목들은 통역사 관점의 직업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이지만, 직업 공동체 내부자가 직접 경험을 통하여 갖게 된 직업이미지는 이 길을 생각하는 후속 세대의 직업 전망 인식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기에 직업이미지 항목 중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다룬 직업이미지 선행연구의 요인들과 본 절에서 다룬 통역사 직업만족도 및 직업 위상 조사 항목들을 반영하여 국제회의 통역사 직업이미지 조사문항을 구성하고 진로결정 시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국제회의통역사 직업이미지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이 직업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의 직업이미지, 직업 선호도, 직업위상, 직업 만족도 조사에서 다루어진 항목들 중 공통적으로 사용된 항목들인 보상, 권력, 업무환경 및 조건, 직무 특성, 사회적 평판, 전문성 요인을 중심으로 국제회의통역사의 직업이미지에 대한 총 36개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제회의통역사는 전문적인 수준으로 동시통역 및 순차통역을 수행하는 직업을 가리킨다.

조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19세-29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5월에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다양한 대상자를 조사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의 표본 모집, 설문조사 발송 및 데이터 수집은 리서치 전문 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게 의뢰하였고, 결과 데이터 분석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총 3,920명에게 설문조사가 발송되었고 이 중 총 212명(남성 104명, 여성 108명)이 설문조사를 최종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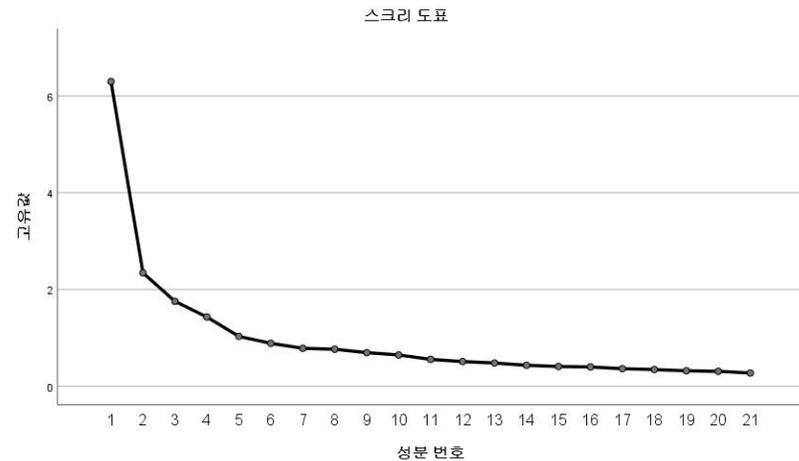
설문조사는 인적사항(객관식 5개 문항), 통역사 유사직업(객관식 1개 문항), 유사직업 선택 이유(서술형 1개 문항), 척도문항(보상, 권력, 업무환경 및 조건, 직무 특성, 사회적 평판, 전문성의 6개 요인, 총 26개 객관식 문항), 선호직업(객관식 1개 문항), 통역 및 통역사 접한 경로(객관식 2개 문항)의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2장 선행연구의 직업이미지 및 직업선호도 설문조사 도구들을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문항 유형의 경우, 객관식 35개 문항, 서술형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객관식 문항은 탐색적 요인 분석¹⁾과 직업 선호도 분석에 사용되었고 서술형 문항은 객관식 문항을 보완하는 정성적 의견을 추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척도문항 응답 데이터에 대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을 추출하였고, 기술통계 및 차이검정 등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Subscription을 이용하였다.

4. 설문조사 결과

4.1 직업이미지 요인추출

설문조사를 위하여 선정한 문항 중 26개 척도문항들이 연구자가 예상한 요인으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예상한 요인은 총 6개였으나 신뢰도 계수나 공통성이 낮거나 요인별 문항이 2개 이하로 적은 문항 및 요인들을 제외한 결과 .847 ~ .446의 부하량 범위 내의 총 5개 요인,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제외된 요인 및 문항은 업무환경 및 조건 요인과 사회공헌 문항이며, 제거된 문항을 제외한 5개 요인과 문항들은 연구자의 예상에 부합하였다. 아래 그림 1은 Eigen 값 1 이상인 총 5개 요인 추출의 근거가 되는 스크리도표이고, <표 1>은 요인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5개 요인은 ①직무특성 ②사회적 평판 ③보상 ④권력 ⑤전문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 설명된 총분산 스크리 도표



1) 사전에 정리되지 않은 자료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 구조를 찾고 척도 정제를 하기 위한 분석(이지은, 강혜영 2019)

〈표 1〉 요인추출(회전된 성분행렬)

문항	성분					공통성	Cronbach's α (전체: 0.873)
	1	2	3	4	5		
도전적인 일일 것이다.	.784					.677	.771
일이 새롭고 변화가 있을 것이다.	.778					.659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641					.526	
창의성이 요구되는 일일 것이다.	.600					.451	
이 직업을 통해 자기계발이 가능할 것이다.	.596					.531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다.	.775					.690	.763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다.	.713					.641	
남의 눈에 잘 띄는 일이다.	.695					.534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일이다.	.530					.547	
고용이 안정적인 것이다.	.814					.708	
평생직업으로 적합하다.	.759					.602	.741
수입이 안정적인 것이다.	.670					.531	
승진 및 경력개발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을 것이다.	.626					.554	
미래 전망이 밝다.	.446					.444	
사회적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752					.709	
조직 내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727					.698	.819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704					.667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는 직업이다.	.535					.671	
높은 학력이 요구될 것이다.	.847					.745	
전문지식이 요구될 것이다.	.757					.665	
전문기술이 요구될 것이다.	.743					.606	.865
KMO						.86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square	1633.185
						df(p)	210(.000)

4.2 직업이미지 평균분석

본 절에서는 4.1절에서 구성된 요인을 중심으로 직업이미지 응답 평균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표 2>는 전체 212명 응답자의 응답 평균과 표준편차를 요인별, 문항별로 보여준다. 요인별로는 국제회의통역사에 대한 전문성 이미지가 매우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직무특성 요인도 직업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평판, 보상, 권력 요인은 보통 수준에 그쳤다. 문항별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국제회의통역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요인 중 ‘고학력’과 ‘전문지식’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기술’ 요구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직무특성 요인 중에서 문항별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항목을 검토한 결과, 국제회의통역이 도전적이고 새롭고 변화가 있으며, 재미있고 자기계발이 가능한 직업이라는 항목이 이에 해당하였다. 사회평판 요인 중 높은 수준인 항목으로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일이라는 문항이었고, 권력 요인 중에서는 업무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직업이라는 항목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반면 선망하는 직업, 고용 안정성 항목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과 문항은 ‘보통’ 수준이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제회의통역사가 전문성과 역동적 직무특성을 갖춘 직업이지만 정작 대중적 선호도에 해당하는 사회평판과 보상이 크지 않은 편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영향력 면에서도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영향력과 조직 영향력은 크지 않은 반면 협소한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2〉 직업이미지 응답평균

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요인평균
1. 직무 특성	도전적인 일일 것이다.	3.74	.852	3.58 (.630)
	일이 새롭고 변화가 있을 것이다.	3.47	.941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3.48	.769	
	창의성이 요구되는 일일 것이다.	3.29	1.029	
	이 직업을 통해 자기계발이 가능할 것이다.	3.95	.730	
2. 사회적 평판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다.	2.99	.843	3.19 (.653)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다.	3.02	.779	
	남의 눈에 잘 띄는 일이다.	3.17	1.012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일이다.	3.59	.764	
3. 보상	고용이 안정적인 것이다.	2.81	.952	3.09 (.690)
	평생직업으로 적합하다.	3.22	.955	
	수입이 안정적인 것이다.	3.12	.876	
	승진 및 경력개발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을 것이다.	3.23	.912	
	미래 전망이 밝다.	3.19	1.013	
4. 권력	사회적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3.39	.920	3.35 (.722)
	조직 내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3.20	.886	

5. 전문성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3.64	.911	4.17 (.655)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는 직업이다.	3.18	.870	
	높은 학력이 요구될 것이다.	4.19	.756	
	전문지식이 요구될 것이다.	4.40	.724	
	전문기술이 요구될 것이다.	3.91	.952	

다섯 가지 요인에서 제거된 문항들 중 업무환경 및 조건과 사회공헌 문항 응답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정리하였다. 응답자들은 국제회의통역사가 시간적 여유는 적지만 일의 자율성은 낮지 않고, 첨단 기기가 다소 갖춰진 청결한 환경에서 일하며, 사회 공헌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업무환경 및 조건, 사회공헌 문항 응답평균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다.	2.89	.950
일을 자율적으로 할 것이다.	3.29	.953
근무환경이 청결할 것이다.	3.59	.776
첨단 기기와 장비가 갖춰진 환경에서 일을 할 것이다.	3.24	.898
사회에 공헌하는 일일 것이다.	3.68	.826

남녀 응답자 간 의견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Levene의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 문항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네 개의 문항과 두 개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남녀응답 차이 t검정

요인	문항	문항		요인	
		유의확률	평균차이 (남-여)	유의확률	평균차이 (남-여)
1. 직무특성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015	-.256	.033	-.184
3. 보상	고용이 안정적인 것이다.	.041	.266	-	-
4. 권력	사회적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001	-.429	-	-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는 직업이다.	.017	-.286		
5. 전문성	-	-	-	.005	-.249

직무특성 요인 중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문항의 경우 통합 평균 3.48이었는데, 남녀 응답 비교 결과 여성 3.60, 남성 3.35로, 여성 응답자들은 남성보다 국제회의통역사를 더 재미있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특성 요인 전체적으로도 여성 응답자들의 인식이 더 긍정적이었다. 권력 요인 중 사회적 영향력 문항(남: 3.17, 여: 3.60)과 사회적 지위를 묻는 문항(남: 3.04, 여: 3.32)에서도 여성 응답자들의 인식이 남성 대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요인의 경우 남녀 응답 모두 매우 높은 가운데 여성 참가자들의 응답이 남성 대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다(남: 4.04, 여: 4.29). 다만 보상 요인 중 고용 안정성 문항에서는 남성이 여성 대비 유의하게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남녀 모두 고용 안정성을 낮게 보는 편이었다(남: 2.94, 여: 2.68). 대부분의 응답에서 남녀간 의견이 비슷했지만 여성 응답자들은 국제회의통역사가 사회적 영향력 및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재미 있으며, 전문적인 일이라는 인식이 남성보다 더욱 강한 반면, 고용안정성은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4.3 직업 간 비교 및 정보 접근 경로

본 절에서는 대학생 응답자들의 국제회의통역사에 대한 직업이미지를 다각적으로 보기 위해 다른 직업과의 비교분석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국제회의통역사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회의통역사와 유사하다고 인식되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이에 대한 응답 중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두 직업을 <표 5>에 정리하였다.

<표 5> 국제회의 통역사 유사 직업 인식

순위	유사직업	빈도(명)	%(N=212)
1	번역사	176	83.0%
2	외교관	136	64.2%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번역사와 외교관을 국제회의 통역사와 가장 유사한 직업으로 선택하였다. 응답자 대부분은 통역과 번역이 모두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서 유사직업으로 번역사를 선택했다고 밝혔

다. 물론 국제회의통역사도 번역을 겸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통역과 번역이 구어와 문어의 차이가 있다는 점, 업무 방식, 접근 방식, 업무 환경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참가자들은 통역이 언어 간 소통을 위한 작업이라는 점을 가장 큰 특성으로 보고 번역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교관과 유사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국가를 대표하거나 외교 업무에 동반되고 이문화 간 정확한 의사 소통을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정신에 어울리면서도 정확한 의사전달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관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응답자 154)
국제회의의 통역사라면 외교 업무에 동반될 것이므로 외교관과 비슷한 이미지로 느껴졌다. (응답자 59)
국제회의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외교관을 선택했다. (응답자 41)
국제회의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나라 사이의 국제적인 대소사를 처리하는 외교관의 특성. (응답자 70)
세계 무대에서 일하며 외국어를 사용한다. (응답자 51)

남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항목은 ‘방송국 아나운서’였다. 전체 응답 빈도는 32명(15.1%)으로 높지는 않았지만, 여성 응답 빈도는 23명인 반면 남성 빈도는 9명에 불과해 남녀 간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국 아나운서와 국제회의의 통역사의 공통점으로는 말로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점,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 언어능력과 순발력이 요구된다는 점, 공식석상에서 격식을 갖춰 진행한다는 점, 회의 전반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 등 ‘말’로 진행된다는 점과 ‘전문성’의 관점에서 유사한 것으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반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모두 언어능력과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응답자 87)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 긴장하고 진지하게 듣는 태도의 이미지가 사무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통역이 이루어질

때가 많은데 그때 입는 차림새 또한 격식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자 95)
동시통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언어적 능력과 사회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응답자 145)
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통역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아나운서 mc의 인상을 받았다. (응답자 56)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직업이라서 대본을 그대로 읽는 아나운서랑 비슷한 것 같다. (응답자 53)

여러 직업 중 국제회의의 통역사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호직업을 묻는 다중응답 문항을 포함시켰고,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6> 선호직업 순위

순위	선호직업	빈도(명)	%(N=212)
1	AI, 빅데이터, 게임개발 등 ICT 전문가	98	46.2%
2	공무원	90	42.5%
3	대학교수	89	42.0%
4	법조인	86	40.6%
5	회계사, 재무전문가	81	38.2%
6	연구원	80	37.7%
7	의사	75	35.4%
8	약사, 간호사	74	34.9%
9	기업가, 벤처사업가	63	29.7%
10	경영컨설턴트	60	28.3%
11	외교관	59	27.8%
12	금융, 증권, 보험 전문가 초중고 교사	58	27.4%
14	통역사	55	25.9%
15-20	방송/영화제작자, 인사/조직관리, 유튜브, 홍보/마케팅, 번역사, 기자	44-50	21.7%~23.6%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은 40% 이상을 차지한 AI, 빅데이터 전문가, 공무원, 대학교수, 법조인이었으며, 통역사를 선호직업으로 응답한 빈도는 212명 중 55명으로 25.9%였으며 제시된 25개 직업 중 14위를 차지하였다. 55명 중 남성이 17명, 여성은 38명으로 여성 응답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사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전문직으로서 외교관, 금융 전문가, 교사 등 직업들과 비슷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여성 응답

자들의 주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선호직업으로 통역사를 선택한 응답자들이 선택한 다른 직업들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는 각 직업을 선택한 응답자 중 통역사를 교차선택한 비중이 40%가 넘는 직업들을 정리하였다.

<표 7> 통역사와 교차선택한 직업 목록

선호직업(빈도)	통역사 교차 선택 빈도	항목 중 통역사 교차 선택 비중	전체 응답자 중 통역사 교차 선택 비중
번역사(46명)	37명	80.4%	17.5%
법률인(86명)	35명	40.7%	16.5%
외교관(59명)	33명	55.9%	15.6%
약사, 간호사(74명)	32명	43.2%	15.1%
방송 및 영화 제작 전문가(51명)	26명	51.0%	12.3%
경영 컨설턴트(60명)	25명	41.7%	11.8%
기자(44명)	24명	54.5%	11.3%
홍보 및 마케팅 전문가(46명)	24명	54.5%	11.3%
인사, 조직관리(50명)	20명	40.0%	9.4%
방송국 앵커, 아나운서(36명)	19명	54.3%	9.0%
행사 기획자(25명)	17명	68.0%	8.0%
연예인(36명)	16명	44.4%	7.5%
영업(13명)	7명	53.8%	3.3%

앞서 통역사와 번역사가 유사한 직업이라는 인식을 반영하듯, 번역사를 선호직업으로 선택한 응답자의 대부분인 80.4%가 통역사를 교차선택하였다. 그 외 각 직업 선택빈도 30명 이상인 직업 중에는 외교관, 기자, 방송 및 영화 제작자, 홍보 및 마케팅 전문가, 방송국 아나운서, 연예인이 높은 교차 선택비중을 보여 구어로 언어를 사용하고 국제 무대의 공식석상에 서는 일이나 방송, 홍보, 영화 등 매체 관련 직업을 선호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 통역사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은 직업 선호도를 전공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이공계열보다는 인문 및 사회과학계열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언어전공이 많은 인문계열에서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국제회의통역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지식 등이 두루 필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수

단이 언어인 관계로 인문계열 응답자 중 직업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전공분야별 통역사 선호도

전공	전공 인원	통역사 선호 빈도	전공별 %
인문계열	44	19	43.1%
사회과학계열	77	26	33.8%
자연과학, 공학계열	79	8	10.1%
의대	12	2	16.7%
합계	212	55	-

<표 9>와 <표 10>은 직업에 대한 경험 및 구체적 정보를 접한 경로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대학생 응답자들은 대부분 방송이나 Youtube 등 대중적 매체를 통하여 동시통역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외신이나 특강 강연의 생방송 동시통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방송에서 전문적 동시통역이 제공됨으로써 직업에 대한 전문성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외 행사장이나 학교 강의에서 제공된 통역으로 접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표 9> 통역 접한 경로

전공	빈도	%
1) TV 생방송, Youtube를 통해 통역을 들어본 적이 있다	139	65.6%
2) 컨퍼런스, 세미나, 학술대회 등 회의장에서 통역을 들어본 적이 있다	81	38.2%
3) 학교 강의나 특강에서 통역을 들어본 적이 있다.	73	34.4%
4) 기타	4	1.9%
5) 통역을 접한 경험이 없다.	30	14.2%

한편 <표 10>에서 보듯 국제회의통역사에 관한 구체적 직업정보는 대부분 대중매체와 인터넷, SNS를 통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개발 프로그램에서 노출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중매체, 인터넷, SNS 사용이 높

은 점을 감안하면 해당 채널에서 직업 소개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직업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국제회의통역사’ 직업정보 접한 경로

전공	빈도	%
1) TV, 신문 등 대중매체	129	60.8%
2) 인터넷, SNS	107	50.5%
3) 진로개발 프로그램, 자료, 교과서, 학원 등	42	19.8%
4) 주변 지인 중 통역사가 있다.	10	4.7%
5) 기타	4	1.9%
6) 구체적 직업정보 접한 경험 없음	46	21.7%

이상으로 국제회의통역사에 관하여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를 소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문항 및 요인별 평균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생의 국제회의통역사에 대한 직업이미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직무특성, 사회적 평판, 보상, 권력, 전문성의 다섯 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 및 문항별 응답 분석 결과, 응답자 인식에 가장 두드러진 직업이미지는 ‘전문성’ 이미지이다. 응답자들은 국제회의통역사가 학력, 전문지식, 전문기술 요구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와 함께 직무 특성면에서도 도전적이고 재미있으며 자기계발이 강한 역동적인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일이면서 업무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회의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다른 문항들을 살펴

보면 직무 특성 면에서 국제회의통역이 창의적이고 새로운 변화가 많은 일로 강하게 인식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의 과정에서 적합한 목표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언어적 창의성, 소통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비언어적 접근, 통역 준비, 진행,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의 융통성 및 효과적 업무 처리 방식 등 창의적인 접근이 많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통역이 일반 대학생들에게는 창의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평판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남의 눈에 잘 띄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응답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 면에서도 뚜렷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보이지 않았는데, 평생직업, 안정적 수입, 승진 및 경력개발 기회 여부, 미래 전망 등에서 모두 보통 수준에 그쳤고, 고용 안정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 면에서도 업무 과정에서의 영향력 발휘 외에는 사회적 영향력, 조직 내 영향력, 사회적 지위 모두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국제회의통역사는 전문성 있고 도전적인 일이기에 자기계발이 가능하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업무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이지만, 직업 선호도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고용 안정성, 수입, 미래전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적고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기대하게 되는 조직, 사회적 영향력과 사회적 지위 면에서 전망이 밝지는 않으며, 대중적 선호도가 높거나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소개한 통역사 직무만족도 관련 연구(이지은, 2017; 임세인, 2018 참고)에서 현직 통역사들 사이에서 낮게 평가된 요소들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해당 직업이미지가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남성에 비해 여성 응답자는 사회적 영향력과 사회적 지위 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직업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남성보다 여성 응답자들이 통역사를 선호 직업으로 더 많이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나, 국제회의통역사에 대한 직업이미지가 여자 대학생들에게 다소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사 직업으로는 언어 전환 과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번역사’가, 그리고 외국어를 사용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일과 다른 국가의 문화와 정신을 정확히 이해하여 소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외교관’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공식

석상에 서고 말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방송국 아나운서와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외교관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을 받은 것은 그만큼 국제회의통역이 국가 간, 이문화간 전문적 언어 소통을 수행한다는 전문성 이미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다시 존중받는 일이라는 응답과 연결된다.

척도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응답이 많았던 것을 반영하듯, 타 직업과의 비교에서는 제시된 직업들 중 중간 정도의 순위를 차지하였다. 직업 선호도 순위를 보면 전통적으로 인기 직종으로 꼽혀왔던 공무원, 교수, 법조인 등이 여전히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AI, 빅데이터 등 IT 전문가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한때 전문직으로 인기를 끌었던 국제회의통역사(박소영 2020)는 14위에 그쳤다. 비슷한 순위에 있는 다른 직업들이 초중고 교사, 금융/증권/보험 전문가, 외교관, 방송/영화 제작자 등이었다. 상위권에 포진한 인기 직업이나 중위권 직업 모두 전문성이 대체로 강한 직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전문성이 직업선호도의 최우선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 보상, 권력, 사회적 평판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형성되어 있는 국제회의통역사에 대한 직업이미지를 대학생들은 어디에서 얻게 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TV, 유튜브 등 대중매체를 통해 통역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고, 대중매체, 인터넷, SNS 등 미디어를 통해 구체적 직업정보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대중매체, 인터넷, SNS 등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꾸준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전문매체를 통하여 그동안 통역사가 많이 소개되긴 했으나 연예인 및 유명인의 외국어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풀려 소개되거나 외모를 부각시키는 등 실제 국제회의통역사와 동떨어진 이미지가 소개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허지은 2016). 국제회의통역은 어설뿐 언어지식만으로는 제대로 수행되기 힘들고 오랜 훈련을 통해 전문성이 연마된다는 점에서 대중적인 매체에서 제대로 된 직업이미지가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국제회의통역 현장 유형과 직업경로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통역사의 직업이미지는 대통령 수행통역, 생방송 동시통역 등에 국한된 경향이 있어 전문성 이미지는 부각되지만 매우 협소한 범위의 통역 유형만이 노출될 뿐이다. 물

론 인터넷과 SNS에서는 개별 통역사들이 일상적 현장의 모습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매체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직업에 관심을 갖고 팔로우를 하거나 검색을 하는 수고를 들여야 관련 포스팅에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접근성이 뛰어난 대중매체에서 현재 인식이 저조한 보상, 권력, 사회적 평판 요인을 포함하여 국제회의통역사의 직업세계가 제대로 소개된다면 직업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본고에서는 대학생의 국제회의통역사에 대한 직업이미지를 연구하였다. 진로 결정을 앞두고 여러 직업을 탐색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직업이미지 요인을 추출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현황과 미래 인재 발굴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회의통역은 매우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에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회의통역사가 우수인재에게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되기 위하여 개선하고 보충할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직업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매체 유형도 확인하여 향후 개선 노력의 방향설정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서울지역 대학생으로 국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표본 확대의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본 연구가 공시적 연구를 통한 결론을 도출한 의의가 있으나 향후 통시적 연구를 통하여 과거 대비 달라진 국제회의통역사의 직업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통역사 지망생으로 범위를 좁혀 보다 심층적인 직업이미지를 연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정성적 연구도 실시하여 국제회의통역사 직업이미지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혜영, 엄성혁 (2017) 「중학생과 학부모가 지각하는 직업선호도와 직업이미지: 연예인, 프록케이머, 의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285-311.
- 강혜영, 이지은, 송윤심 (2014) 「중학생의 선호직업에 대한 직업이미지 분석」, 『진로교육연구』 27(3): 95-116.
- 국립국어원 (2019) 「표준국어대사전」, Available at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 김병숙, 장부경 (2007) 「희망직업이미지와 자기이미지 일치성이 대학생의 진로 경로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27-44.
- 김희란, 이지민 (2018) 「지방 자치 단체 통번역사의 역할, 지위, 정체성: 대구시 청 소속 통번역사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9(1): 7-31.
- 박기순 (2000) 『기업, 문화, 커뮤니케이션 - 21세기 새로운 PR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 박선미, 정이화, 최정호 (2012)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직업 빈도와 이미지 분석: 2007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중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1(4): 77-92.
- 박소영 (2020) 「언론의 통역사 보도에 나타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통역과 번역』 22(1): 79-104.
- 오미영 (2014) 「TV 드라마 시청자의 비서직 인식에 대한 연구: 배양효과와 성 역할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비서·사무경영연구』 23(1): 49-69.
- 이상빈 (2013) 「국내 학부 통역전공자 인식 조사: 통역 교육 및 통역사 직업에 관한 소규모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번역학연구』 14(4): 91-113.
- 이지은 (2017) 「통역사의 직업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 프리랜서와 인하우스 통역사 비교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9(3): 85-109.
- 이지은, 강혜영 (2019) 「대학생 선호직업이미지 척도개발 및 타당화: 인지적 직업이미지 척도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2(4): 263-288.
- 임세인 (2018)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직업지위 인식에 관한 질적연구-조직 내 직업지위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0(1): 147-176.
- 최일모 (2007) 『TV 드라마 속에 나타난 직업 이미지(Image)가 중학생의 직업 이미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 허지은 (2016) 「언론보도에 투영된 동시통역에 대한 고찰」, 『통역과 번역』 18(2): 153-187.
-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4) 「대학생의 직업인식 발달연구」, 『아시아교육연구』 5(1): 127-143.
- Dam, Helle V. and Karen Korning Zethsen (2013) 'Conference Interpreters - The Stars of the Translation Profession?: A study of the Occupational Status of Danish EU Interpreters as Compared to Danish EU Translators', *Interpreting* 15(2): 229-259.
- Gottfredson, Linda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Gottfredson, Linda S. (1996)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in Duane Brown and Linda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3r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79-232.
- May, Frederick E., Victoria Champion and Joan K. Austin (1991) 'Public Values and Beliefs toward Nursing as a Career',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7): 303-310.
- Thompson, Mindi N. and Jason J. Dahling (2010) 'Image Theory and Career Aspirations: Indirect and Interactive Effects of Status-related Variab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 21-29.
- Witter-Merithew, A. and Leilani Johnson (2004). 'Market Disorder within the Field of Sign Language Interpreting: Professionalization Implications', *Journal of Interpretation* 14(1): 19-56.

<부록 1> 설문조사

I. Screening 질문 및 기본정보 문항

1. 다음 중 귀하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주시시오.

- 1) 4년제대학교 재학생 2) 4년제 대학교 휴학생(→설문 중단)
- 3) 4년제대학교 졸업생(→설문 중단) 4) 대학원생(→설문 중단)
- 5) 기타(→설문 중단)

2.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부전공, 복수전공을 하거나 자유전공 학부, 사범대의 경우 가장 비중이 크거나 가까운 전공에 표시해주시시오)

- 1) 통번역관련 학과 (→설문 중단) 2) 인문계열(언어, 문학, 사학, 철학 등)
- 3) 사회과학계열(정치, 외교, 행정, 사회, 심리, 경제, 경영, 법학, 국제학부 등)
- 4) 자연과학, 공학계열 5) 의학계열 6) 기타(→설문 중단)

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만 18세 이하(→설문 중단)
- 2) 만 19세 ~ 29세
- 3) 30세 이상(→설문 중단)

4. 귀하는 현재 몇 학년 재학중이십니까?

- 1) 1학년
- 2) 2학년
- 3) 3학년
- 4) 4학년

5. 귀하의성별을 표시해주시시오.

- 남
- 여

II. 유사직업 선택 문항

1.아래 직업들 중 선생님 생각에 ‘국제회의 통역사’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직업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국제회의의 통역사란 통역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직업으로 동시통역과 순차통역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동시통역이란 연사가 발화를 시작함과 동시에 통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통역을 가리키고, 순차통역은 연사가 발화하는 동안 통역사가 잘 듣고 필요시 노트 테이킹을 한 후, 연사 발화가 끝나면 통역을 시작하는 형태의 통역을 가리킵니다.

- | | |
|--------------|------------------|
| 1) 법조인 | 11) 연구원 |
| 2) 번역사 | 12) 영업 |
| 3) 기자 | 13) 홍보및 마케팅 전문가 |
| 4) 방송국아나운서 | 14) 경영컨설턴트 |
| 5) 행사진행자(MC) | 15) 기업가, 벤처사업가 |
| 6) 유튜버 | 16) 공무원 |
| 7) 연예인 | 17) 외교관 |
| 8) 행사기획자 | 18)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
| 9) 교수 | 19) 보기중 전혀 없음 |
| 10) 학원강사 | |

2. 위와 같이 선택하신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주시시오.

III. 척도 문항

다음은 어떠한 직업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들을 잘 읽으시고 ‘국제회의 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5점 척도: 전혀 아니다-아니다-보통-그렇다-매우 그렇다)

- 1) 수입이 안정적인 것이다.

- 2) 평생직업으로 적합하다.
- 3) 고용이 안정적인 것이다.
- 4) 승진 및 경력개발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을 것이다.
- 5) 미래 전망이 밝다.
- 6) 조직 내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 7)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 8) 사회적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 9)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는 직업이다.
- 10)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다.
- 11) 근무환경이 쾌적하고 청결할 것이다.
- 12) 일을 자율적으로 할 것이다.
- 13) 첨단 기기와 장비가 갖춰진 환경에서 일을 할 것이다.
- 14) 이 직업을 통해 자기계발이 가능할 것이다.
- 15) 일이 새롭고 변화가 있을 것이다.
- 16) 도전적인 일일 것이다.
- 17) 창의성이 요구되는 일일 것이다.
- 18)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 19) 남의 눈에 잘 띄는 일이다.
- 20)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다.
- 21)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일이다.
- 22)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다.
- 23)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다.
- 24) 전문지식이 요구될 것이다.
- 25) 높은 학력이 요구될 것이다.
- 26) 전문기술이 요구될 것이다.

IV. 사후문항

1. 다음직업에 대하여 귀하가 선호하는 직업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 1) 법률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 2) 회계사, 재무 전문가

- 3) 통역사
- 4) 번역사
- 5) 기자
- 6) 방송국앵커, 아나운서
- 7) 유튜버
- 8) 연예인
- 9) 방송및 영화 제작 전문가
- 10) 행사기획자
- 11) 초중고교사
- 12) 대학교수
- 13) 연구원
- 14) 의사
- 15) 약사, 간호사
- 16) AI, 빅데이터, 게임 개발자, 프로그래머 등 ICT 전문가
- 17) 영업
- 18) 홍보및 마케팅 전문가
- 19) 인사, 조직관리
- 20) 경영컨설턴트
- 21) 기업가, 벤처사업가
- 22) 금융, 증권, 보험전문가
- 23) 공무원
- 24) 외교관
- 25) 건축, 시공, 설계전문가
- 26) 기타

2. 다음의 통역과 관련된 상황 중 귀하가 통역을 접한 경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 1) TV 생방송, Youtube를 통해 통역을 들어본 적이 있다
- 2) 컨퍼런스, 세미나, 학술대회 등 회의장에서 통역을 들어본 적이 있다
- 3) 학교강의나 특강에서 통역을 들어본 적이 있다.
- 4) 기타(직접 입력:)
- 5) 통역을 접한 경험이 없다

3. 다음 중 귀하가 국제회의통역사라는 직업을 접한 경로를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 1) TV, 신문 등 대중매체
- 2) 인터넷, SNS
- 3) 진로개발프로그램, 자료, 교과서, 학원 등
- 4) 주변지인 중 통역사가 있다.
- 5) 기타(직접 입력:)
- 6) 국제회의통역사라는 직업 관련 구체적 정보를 접한 경험이 없다

이상으로 설문조사를 마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Occupational Image of Conference Interpreters as Perceived by Undergraduates

Huh, Ji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occupational image of conference interpreters as perceived by undergraduates in Seoul, Korea.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212 undergraduat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Quantitative analysis includ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Five factors such as, power, reward, social reputation, job trait, and expertise, were extract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reveals that participants perceive conference interpreting as a well respected, interesting job that requires extensive expertise. It is also perceived as a job that offers self-development opportunities. Furthermore participants believe that conference interpreters can be influential at work. Fe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to perceive conference interpreting as an interesting and powerful profession enjoying high social status. The job was moderately popular among participants and was regarded as similar to diplomats as both jobs involve using foreign languages to represent a certain culture or country and facilitate communic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conference interpreting is a highly professional job it needs to reinforce the power and reward images in order to attract more young talents to this field.

▶ Key Words: occupational image, job perception, occupational status, job satisfaction, conference interpreter

▶ 주제어: 직업이미지, 직업인식, 지위, 직업만족도, 국제회의통역사

허지운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학과 조교수

huhjiun@ewha.ac.kr

관심분야: 통역사 지위, 직업이미지, 통번역 시장, 수요분석

논문투고일: 2020년 8월 5일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9일